

이기는 삶

독단전행(獨斷專行)

有高人(유고인)지행자(지행자) 固見非於世(고견비어세) 有獨之知慮者(유독지지도자) 必見放於民(필견방어민)

‘남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는 자는 세상의 비난을 받고 독단을 하는 자는 반드시 백성에게 경멸받는다.’는 뜻이다.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로서 상앙이 효공에게 제도의 대개혁을 진언할 때 굽히지 않는 결단을 피력한 말이다. ‘너무 강한 자는 흔히 인기가 없듯이 비범한 능력이 있는 자는 민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중에게 영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상앙은 이렇게 간언했다. “어느 시대에도 선각자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에 효공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상앙을 등용했다. 그리하여 이 말은 지배자의 우월감을 자극하여 독단전행(獨斷專行)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상앙은 왕의 권위를 등에 업고 10년간 진(秦)나라의 재상으로 법치주의 정

치를 펼치며 대개혁을 단행하여 진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켰으나 효공의 죽음으로 실각한 뒤에 결국 피살되었다. 독단전행은 양날의 검이기에 그 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성공한다면 만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지만 만약

통령 역시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모든 것을 최순실에 의지한 결과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더불어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와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서 탄핵되었고 무소불위의 제왕적(帝王的) 대

독단전행은 양날의 검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옳은 일이라면 눈치보지 말고 해야

그리고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존경받게 돼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慘憺)해지 는 것이다.

지난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위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의 2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단전행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최순실을 국정농단(國政壟斷)하게 만든 박근혜 전 대

통령의 말로는 죄인의 명을 쓰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독단전행을 해서라도 그 일을 추진해야 한다. 당장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두고두고 칭송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다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한 단체의 최고 책임자는 독단전행을 해서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다. 반대가 두려워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최고 책임자로서 가장 큰 잘못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자문을 구해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일을 하다가보면 내 능력 밖의 일이 반드시 있다. 그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핑계대지 말고 “다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라.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씩 배워나간다면 어느 듯 모두가 존경하는 최고책임자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relationship between thinking and blood  
생각과 피의 관계

사람들은 생각과 피의 관계를 모른다. 그들은 생각과 피의 흐름은 다르다고 믿고 있다.

▶ People do not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inking and blood. They believe that thinking is one thing, and blood is another.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전혀 아니다. 사실, 생각은 오직 피의 산물이다. 그것들은 생각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 But this is not true at all. To tell the truth, thinking is just the product of the blood. They interact intimately.

게다가, 우리는 생각 즉 마음 그리고 피의 상호작용을 알려주는 많은 구절들을 목격할 수 있다.

▶ In addition, we can see many idioms suggesting the interrelation between thinking or heart and blood.

피와 생각이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태초에 악의 마음인 마귀에 의해 사로잡혀 아담과 이브의 피는 하나님의 피에서 마귀의 피로 변했다.

▶ Well, because blood and thought interact intimately, Adam's and Eve's blood changed from God's into Satan's, when they were possessed by the Evil Heart, Satan.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

▶ On this account, we died after all.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피의 작용의 합이며 우리 조상들의 경험의 산물이다.

▶ That is to say, the mind which we have now is the sum of the working of the blood and the results of the experiences of our ancestors.\*

by Alice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과연 존재하는가

수레 끌던 할머니 톱다 교통사고 20살 제주 청년..마지막엔 장기기증. 이는 경향신문에 실린 10월 10일자 신문 제목이다. 제주에서 길 가던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20살 청년의 사연이 울림을 주고 있다. 이 청년은 마지막까지 장기 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할머니 톱다가 교통사고...새 생명 주고 떠난 청년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는 20살 김선웅군의 선행모습(KBS보도화면)

20살 청년의 선행과 안타까운 죽음

-지난 10월 3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정부종합청사 인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김선웅군(20)의 눈에 힘겹게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선웅군은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힘을 보탰다. 하지만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였고, 머리를 크게 다쳤다.

선웅군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뇌사판정을 받았다. 선웅군은 대학에서 요리 관련 공부를 하며 꿈을 키우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봉사활동도 빼먹지 않았다.

가족들은 2남 1녀 중 막내인 선웅군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큰 슬픔에 빠졌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했지만 장기기증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선웅의 어머니 역시 불의의 사고로 뇌사상태로 3년간 투병하다 삶을 마감했다. 당시 선웅군은 9살의 어린 나이였다.

가족들은 어머니를 보내며 장기기증 서약을 했었고, 선웅군도 그 뜻을 이어 받게 된 것이다.

선웅군의 빈소에는 그의 선행을 전해들은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태오 제주성안교회 목사는 “평소 봉사활동도 하고, 가족 일도 돕는 착한 청년이었다”며 “선웅군을 잘 모르는 이들이든 그의 사연을 듣고 빈소를 많이 찾아 위로했다”고 말했다. 발인은 9일 오전 제주성안교회 이기풍기념홀에서 예배로 이뤄졌다.

신앙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왜 이 세상에 이다지도 죄악이 차고 넘치고, 또한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맞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기신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건 아닐는지. 애석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참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

행한 삶이 반복되지 않나 싶다.

왜 그럴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거나 무소부재하다거나 영원불멸의 선(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도저히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가 하나님의 실존을 바로 알게 된다면 인류가 지금처럼 고귀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릇된 믿음과 행실을 낳지 않게 될 것이다.

어서 어서 인류 모두가 이기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 앞으로 속히 돌아와야만 슬픔과 탄식과 죽음이 없게 된다. 말로만 하나님을 외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리를 모르고 마귀의 간계에 속아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만 하다가 하나님을 울리는 대역(大逆) 죄인으로 영원히 버림받게 될까봐 우려된다.

한 청년의 슬프디 슬픈 불행한 죽음을 통하여 인류가 하루빨리 이기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인류 모두가 이기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될 것이다.\*

김주호기자

1면에서

경향신문 사기죄라고 적혀도 종과 사기금액 수백원에 불과한 것을 사기죄의 죄에 해당된 10년을 구형하였습니까. 이 또한 검찰관의 남용과 동시에 선고받은 구형량이 적절하다는 관철판정을 재판부에 인식시키지 못한 검찰관 출수였습니까. 통상 사기죄는 사기 금액에 비례하여 무죄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 관에서 재판부는 무죄 7년을 선고하는 이상을 잃은 판결을 하였습니까. 이는 다분히 對(對)인간 판 결이라는 추정을 하게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죄와 같이 온 교인과 교회당 총회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온 교단의 개혁을 강력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교단이 임하고 있는 문제 해결, 선명, 윤리, 10월 14일, 현재 1,000,000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우리 사법당에서 이 정 1,000,000명이 주선과 1,000,000명이 서명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의 실재 (대표 최우진 김 주호)

본문 : 사법인 헌법부를 운영하는 사법(사법) 헌법부는 정부, 변호사, 통부에서 알고 이를 운영하는 사법(사법) 헌법부, 현재에도 사법(사법) 헌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8.15 특사를 염원하는 교인들은 6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한 달 조금 넘는 7월 15일에 무려 백만 명의 서명을 받는 기적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차로 백만 명 서명 명부를 신고 청와대, 국무총리, 법무부, 안기부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있었다면 마스크에서 앞 다투어 보도하고 아우성을 쳤을 것이지만 어떤 신문 방송도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교인들은 조희성 구세주께서 무죄로 나오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계속 서명운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광복절이 들어있는 8월에 들어서자 무려 7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그야말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땀을 짜는 심정으로 정성을 기울였으나 역시 그 많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조희성 구세주의 사면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면권을 쥐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면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세주께서 서명운동을 지시한 이유는 영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다. 구세주께서 제단에 계시지 않으므로, 더욱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압박을 받으므로 교인들의 신앙이 계속 떨어질 때 교인들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피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발행인 김중만

머리맡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

도서출판 해인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를까.

이제 종설 때와 장소가 필요하다. 고대의 휴식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애독하는 시들 중에서 한 뼛을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녹여 일상사에 접목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자들의 지친 영혼에 한줌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그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그대는 저자가 말한 쉼 곳으로 인도되리라.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재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